

기도

1. 어떤 상황이나 무슨 일에도 주께 하듯 하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바꿀 수 없는 질서 안에서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2.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는 교회 치리에 관한 물음들을 다루는데 집중한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물리적 세계의 한 부분을 악으로 취급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말하고, 교회 행정과 예배에 관한 지시 사항과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훌륭한 종이 되는 방법과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 가르친다.



주께 하듯 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9절 (10장, 446장)

본문은 사도바울을 통해 에베소교회에 종들과 상전들에 대해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 아랫사람과 윗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랫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5~8절).

본문에서 ‘종들아’ 라고 하는데 오늘날로는 아랫사람을 말합니다(5절a). 왜냐하면 지금은 종이냐 노예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해야 될 도리에 대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셨고, 각자의 위치를 정해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직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윗분이 되고, 상전이 되십니다.

아랫사람의 도리는 첫째,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b). 질서를 정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변함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롬12:9),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롬13:10).

셋째, 주께 받을 줄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7절). 그 이유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8절). 만약 사람만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윗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윗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9절).

본문에서 ‘상전들아’ 라고 하는데 오늘날로는 윗사람을 말합니다(9절a).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9절b). 아랫사람이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주께 받을 줄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윗사람도 똑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9절c). 위협한다는 것은 권세와 힘으로 짓누르거나 권위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윗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죄를 품어주면서 대신 회개하고, 도와주면서 잘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9절d). 모든 사람의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인정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믿음으로 행하되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권위를 부리지 말고,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믿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하듯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